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9/25	10/2	10/9	10/16
헬로우십 다과	105도/암만	IMAN	-	MK
어린이 돌봄	이새롬, 이미혜 / 박영미, 나찬미	최설아, 김윤진 / 노현주, 전해경	Mission Celebration	장경림, 신윤선 / 유세정, 박나경
주차 봉사	Chris Steenkolk / 이장춘	황호세/전동명	변동준/박진환	조성갑/박범찬
예배 안내	우간다 (9월) & IMAN (10월)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5가정(부부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부부 목장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앤	조용희/희정	금 7:30p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IMAN	나정우/찬미	금 7:30 pm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 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 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스팍스	박진환/미희	주일 4p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형제 목장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목장		
사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1-11)

균형 잡힌 성장	응답하는 예배	살롬 공동체	변혁 공동체
Pursuing Truth	Responding in Worship	Marked by Love	Living the Gospel

하나님 나라 이야기



따라오라고 하시는 초청: 사역

An Invitation to Follow: Works

본문: 마가복음 3:13-19
설교: 렌지 아브라함 목사

마가복음 3:13-19

-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 (14절) 예수께서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 (15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16절) [예수께서 열둘을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 (17절)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 (18절)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 (19절)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지난 번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중 첫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말씀 전파와 귀신을 쫓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즉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8-9은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의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교회 생활을 편하게 보내기 위한方便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러한 사역으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말씀 전파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말씀 전파는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왕국에 적대하여 이 세상을 뒤트는 악령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2016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 '민음의 삶'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헬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후, Willamette A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김종완 형제, 김벽수 자매 @ 135번방)

2. 어린이사역 안전교육 (Safety Training)

빌리지에서 어린이 사역/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들은 매 2년마다 안전 지침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어린이 사역/돌봄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중, 지난 2년내 안전 교육 클래스를 수강/갱신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주시길 권면드립니다 (문의: 황진희/김윤진 자매).

- 일시: 9월 25일 (주일) 1:30-2:30pm

- 장소: 한인부 사무실 (Rita 4)

3. 날마다 솟는 샘물 10월호 (\$4/권).

10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 지역

1. 이슬람 선교 대회

오레곤 밴쿠버 교회 연합회 주최로 '이슬람 선교대회'가 있으며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 일정: 9/25 (주일) 4pm @ 벨엘장로교회

- 강사: 백남일 선교사 (튀니지/프랑스)

2. 2016년 제4회 오레곤 전통문화예술단 정기공연

오레곤 전통문화예술단 주최의 2016년 제4회 정기공연이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누릴수 있는 기회입니다.

- 일정: 9/25 (주일) 4pm

- 장소: PSU Lincoln Performance Hall (1620 SW Park Ave. Portland. OR 97201)

- 티켓: www.pdx.edu/boxoffice, 503-725-3307

3. 북한을 위한 기도모임 (Reah)

북한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 기도모임이 있으며, 성도님들을 초청드립니다. 모임은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일정: 10월 1일 (토) 1pm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Columbia B

- 주최: Reah International (www.reah.org)

@ 은교회

1. 빌리지 셔틀 운전자 구함 (25-70세)

관심있으신 분은 Memry Walker(memryw@vbconline.com)로 연락 주십시오.

2. 시설 관리인 (Custodial Position) 구인 안내

빌리지에서 파트타임과 풀타임 시설 관리인을 찾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업무 시간은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30/11시까지이며, 풀 타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시간은 동일합니다.

(신청: Mike Fraser, mikef@vbconline.org, (fax)503-520-9499)

3. 비버튼 심포니 오케스트라 "Symphony of Cultures" (9/25(주일), 4pm @ 대예배당, 무료)

오는 25일 비버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Beaverton's Welcoming Week 2016' 행사의 일환으로 빌리지 대예배당에서 "Symphony of Cultures" 공연을 가집니다. 비버튼의 다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독특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공연비는 무료이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4. Senior's Breakfast (10/8(토), 8-9:30am @ Columbia Room)

선교사 Brian&Melissa Leak, Marilyn Escher와 함께 하는 아침 식사에 시니어분들을 초대합니다. vbcm@vbconline.org, 또는 안내 데스크에서 RSVP 해주시면 됩니다.

5. 여성부 성경 공부: The Well (9/27부터, 매주 화요일 @Columbia Room)

- 시간: 오전반 9-11am/ 오후반 6:45-8:30pm

- 등록: women.vbconline.org (안내 카운터에서 안내책자 교부)

- 등록비: \$30 (9/25 이후 등록 시 \$35)

6. 형제 성경 공부: The Mountain (10/3 - 5/1, 매주 월요일, 7:30pm @Columbia Room)

이번 The Mountain에서는 에베소서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 카운터를 방문하시거나 Terry Larrea (terry.larrea@gmail.com)에게로 메일 보내 주십시오.

7. Mom's ministry 안내

- Village Playgroup (두번째, 네번째 목요일, 9-11am @ Fellowship Hall)

아이들과 함께 다른 엄마들과 교제할 수 시간입니다. 영, 유아, 프리스쿨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Lynne Frazier, frazier7270@gmail.com)

- Mom's Life Group (첫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목요일, 9:30-11am @ Fellowship Hall)
엄마들을 위한 목장 모임입니다. (문의: Kim Bello, kjbello@frontier.com)

8. Supper for Six (10/9(화), 6pm@ Fellowship Hall)

오는 10월 9일 Supper for Six 시작 기념 potluck이 있습니다. Supper for Six는 여성 소그룹 모임으로, 일년동안 그룹 구성원들과 음식과 함께 꿈과 희망,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가족처럼 편안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좀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9. 빌리지 대학 (Village University) 가을 학기 (9월 17-18 시작, 오늘까지 등록 가능)

빌리지 대학은 영어로 진행되는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vu.vbconline.org)

10. 침례식 안내 (10/22, 23)

오는 10월 22일, 23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를 원하시는 분은 Dean Christensen 목사님 (deanc@vbconline.org), 또는 Bob Walker 목사님(bobw@vbconline.org)께 연락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1

한가위 잔치를 마치며

물물교환 준비팀



발리지 한인부 한가위

물물교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요한복음 2:7-8)

몇 달 전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물질의 주되심을 설교 말씀으로 전하시면서 초대 교회 때 물질 나눔이 현대 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지에 관한 여러 대안들을 나눠주심으로 말씀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참 귀하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이것 저것 나눌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의 삶으로 실천하는 물질적 나눔을 공동체적 사랑 나눔의 장으로 만들어 25주년 행사로 진행해보자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마음을 담아내고 싶은 소망과 함께 또 한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한 심정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신 말씀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 하인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를 마음에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청지기구나, 청지기로 순종하면 그 뒤는 주님이 하신다’는 마음과 또 한가지는 주님의 몸이신 공동체, 그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말 할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행사 기간까지는 몇 주가 안 남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진행해갈 때 함께 동역하는 자매님들 한분 한분 섭외하는 과정부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팜플렛과 광고 제작부터 행사 당일 데코와 셋팅, 진행, 뒷마무리까지 함께 일해가는 모든 과정이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밖에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날 아무것도 예상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준비된 테이블 공간 안에 알맞게 물품들이 들어와서 셋팅이 되고 한분 한분 가지고 오신 물건들이 소중한 귀한 것을 들고 오신 사랑과 또한 그 많은 물건들이 모두 새 주인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쁘던지요. 성도들 한분 한분 먼저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시고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음이 주님 나라에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지체분들이 들려주시는 간증도 또한 제게는 주님이 주시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증기압력밥솥에 여러 지체분들이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두 분이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 되신 분이 가지고 가셨는데 선택이 안되신 분도 기쁨으로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 전에 전날의 행사 내용을 나누다가 양보해주신 분이 압력밥솥이 정말 필요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계시던 자매님께서 “나에게도 똑 같은 새 것이 있는데.. 사용을 자주 안 하니 필요하신 분에게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구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이 포도주로 변화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구나..감탄이 저절로 흘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청지기오니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청지기로 있으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맛보았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사랑을 보는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귀한 물건을 나눠주시고 서로 챙겨주심으로 섬겨주시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눠서 가지고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랑의 물건들도 모두 잘 흘러갔습니다. 주님의 몸 된 공동체로 함께 이 귀한 행사를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2 침례간증

임철현 형제



큰 다문화 공동체 앞에,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서약 하듯 나서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 다. 하지만, 어떤 결단이 없이는 제가 제 가족 들과 쌓아온 이 수많은 관계는 더이상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 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더 깊은 답을 얻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의구심이 언젠가는 지금보다도 더욱 큰 확신으로 바뀔 그 날을 기 다려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 때, 기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고, 부르심 따라, 제가 택한 길에 흔들림없이 걸어갈 수 있도 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침례에 함께 행복해주심에 감사했으며, 잘 알 수 없는 가슴 뜨거움을 느꼈습 니다. 저희가 침례를 받기까지 항상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 메나 목장 형제자매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3 침례간증

임은숙 자매

어린 아이가 엄마 손 잡고 교회문을 드나 들듯, 아무 생각없이 교회주변에 머문지 도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침례가 어찌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아도 되는 데... 침례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왜 그리 부담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삼첫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배우면서 그 부담은 의미 없는 무거움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좋은 부담감으로 바뀐 것 같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나 영적으로 부쩍 성장함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침례 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풍성한 삶을 향한 첫걸음'으로 받아들이고자합니다. 침례 를 통해, 공공연하게는 물론이고, 이제는 좀더 스스로에게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손내미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찬송가를 노래하는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침례를 권해주신 메나 목장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 기뻐해주 시고 축복해주신 많은 형제 자매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설렘을 오래 오래 되새기며, 주 안에서 빌리지 공동체에 소속함을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4 침례간증

김다비 자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매주 교회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한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 제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 속에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냉소주의와 외로움은 아직도 분명히 기억 납니다. 제가 Theophilus에 처음 참석했을 때 제 마음은 그런 상태였고, 그 뒤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 후 3년 짜 Theophilus에서 저는 믿음의 친구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나같은 자격없는 이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확실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러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또 저와 가까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내면서, 저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고, 학교 생활은 더욱 더 힘들어지게 되었고, 저는 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르는 생각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난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어. 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 언제 날 도와준 적이라도 있었나?” 라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법으로 매일 맞서 싸웠습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힘든 일들을 이런 마음 가짐으로 맞서다가, 봄방학에 집에 돌아왔을때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팔에 안겨 울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지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운 뒤에, 저는 제 방으로 가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생각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앞으로 제 미래를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길 원하는 이유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의 정점에 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저는 여기에 섰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제가 제 삶과 목숨을 바칠 이는 오직 주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 was raised in a Christian household and attended church every weekend so Christ has always been a constant in my life. His presence was never questioned as I was in younger, but then I started to have my doubts as I entered middle school. I remember distinctly the feeling of my cynicism and loneliness as the thoughts running through my head questioned everything I was raised to believe. It was in this state of mind that I first attended Theophilus and would attend Theophilus for the next three years. Here, through the discussions I had with fellow believers and the sermons shared I found that slowly I was starting to understand that there was no way there wasn't a God in this universe and the immensity of His love as He had sacrificed His son for someone as undeserving as me. This was when I definitively accepted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I continued to grow in my relationship with Christ through the trials that were to come for the next years in high school with a strong foundation of trust in God and a community of followers surrounding me. However, when I began my transition to college my Christian community fell away, I was living away from my family, and school became even more stressful as I felt that now my whole entire future was at stake. The thoughts slowly crept in that “I can do this by myself. I don't need God. What has he ever done to help me anyways?” I then fought my way through everyday, every test, and every trial with this mentality until finally I came back home for spring break and broke down in my mom's arms, confessing to her how I felt so apart from God and that I had been living apart from Him. After I had cried all my tears out I went into my room and repented for living so selfishly and thoughtlessly, recommitting my future to Christ and understood that without Him I am nothing.

I want to be baptized because I feel that I am ready. Not ready in that I have reached the epitome of my relationship from Christ in that I am praying and reading the bible (still working on that!) but rather ready to completely give everything that I have to possibly offer to a God who is all-knowing, unchanging, and wholly loving.

So here I am Lord as a sinner forgiven, humbled and grateful for your sacrifice at the cross. With the little that I have to offer send me, as there is no one else in this universe I would live and die for.

